

한국 도시민의 혼수규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nsu (婚需) Norms of Urban Residents in Korea*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홍형옥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김정근

Dept. of Housing, Family and Child Studies, Kyung Hee Univ.
Prof. : Hyung Ock, Hong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Ulsan Univ.
Assistant Prof. : Jung Keun, Kim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해석 및 논의 |
| II. 현대 혼수규범의 접근방법과 관련변인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paper concerned with the Honsu(婚需) norms of urban residents in Korea, and was designed to suggest a solution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extravagant Honsu with the changes in the customs related to Honsu.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questionnaire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χ^2 -test, ANOVA, Scheffé-test,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PC⁺ program.

Factors of HONSU norm, was characterized into 3 types, exchangeabilities and focusing on groom's family, preparation of goods for housekeeping, and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individualism. HONSU was found to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better life for the new family provided by their parents in terms of the family norm. The current problems of extravagant HONSU seems due to the family norm.

Factors of HONSU norms could be grouped into 4 categories by the cluster analysis. They are 1) the preparation of basic house-keeping items for independent family, 2) an opportunity to secure an economic base for the new family, 3) an opportunity to show off their wealth by selecting easily exchangeable goods, and 4) others who select items based on their personalities.

* 본 논문은 1997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an opportunity to show off their wealth by selecting easily exchangeable was the cultural norm of Honsu, and It was found that urban housewives had almost uniform thoughts about Honsu. Consideration of items for individuals' needs and independent life took place in deciding on Honsu for all four types of couples although the weight given to this consideration showed difference. Preparation for the new family and individual needs were the common grounds of HONSU norms in all categories through the weight was different.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 왔다. 그리하여 현대의 가족은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 풍조에 의해 혼례와 혼수문화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시형, 1996). 호화혼수의 병리현상은 무엇보다도 과소비를 부추겨 상대적 빈곤감을 조장하는 등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늘고 있어 단순히 중상층의 몇몇 사례로 끝나지 않고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쳐 확산되는 데 있다. 1996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혼부부의 36.9%가 결혼 후 혼수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갈등' 또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꼈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고 하였고 1.1%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93년(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조사때 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서 혼수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더 이상 특수한 몇몇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이와같은 혼수에 대해서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참금과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사랑이 중시되면서도 혼인에 있어서 물질적 재화의 교환이 핵심적 과정이 되고 있으며(Kaplan, 1985) 지참금이 출현하는 현대혼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딸의 재산 상속 인정과 아버지의 경제력 과시, 딸의 지위 보존, 이로 인해 시집가족으로 부터의 자율성 부여, 남편의 절대권력으로부터 자유, 재산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있다(Casey, 1989)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 현대 혼수는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목적과 달리 여자를 평생 먹여주고 생존을 책임지

는 대가로서의 교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이는 평생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남성 본위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혼인에서 혼수 교환은 핵심적 과정이 되고 혼수의 경제적 기능은 신부책임의 대가로서 교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혼수도 경제적 물질적 값의 지불과 교환으로 보고 있다(장은영, 1990; 이효재 외, 1991).

지금까지 혼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혼례 의식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면서 일부 혼수 품목 및 의식을 조사한 연구(고광림, 1990; 박혜인, 1991)가 있으며, 과다혼수의 절제를 위한 목적으로 예물, 예단, 살림살이의 혼수품목과 행태를 조사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86;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한국사회문화연구원, 1996)들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혼수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김모란(1993)은 혼수문제의 원인을 '자본제적 가부장제'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두고 있어 혼수는 혼인성립의 상징으로서 예물교환의 성격을 띠었던 전통적 혼인거래관행과 달리 신랑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사는 대가로서 신부측이 지불하는 물질적 재화를 의미하는 '신랑값'으로 규정한다. 또 이러한 혼수의 의미는 전통사회와 현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혼수의 보편적 의미를 구하기 위해 일반집단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정용선 외 2인(1994)의 연구에서는 Emerson (1969: 1972)의 교환망이론 중 '생산적 교환' 명제를 사용하여 혼수의 의미를 '협동적 관계'를 형성한 신혼부부가 연합산물인 결혼생활을 산출하기 위해 공동출자하는 자원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현대 혼수 연구는 호화 혼수와 과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혼수문화에 깊은 통찰력과

각성을 일으키는 데는 공헌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고, 주로 '혼비'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한정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다양한 혼수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혼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혼수문화의 역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신부집에서 마련하는 혼수는 유라시아의 지참금과 같이 재산상의 권리도 강제적 의무 사항이 아닌 상징적 예물교환의 의미(김모란, 1993)를 갖고 있다. 이는 신라 이후 자녀균분상속제에 의해 지속된 딸의 재산권 보장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생전 상속이 불필요하고 서류부가婿留婦家 혼속婚俗의 모쳐, 부처 거주규정으로 경제적 물질적 보조를 위한 혼수규범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수규범은 17세기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으나 유교 국가체계의 정착, 생산양식의 발달,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세력관계 형성(최성애, 1993) 및 부계 친족 조직성립의 과정에 의한 여성의 지위 하락, 자녀균분상속제의 소멸과 서류부가혼속의 역기능적 작용(박혜인, 1990)에 의해 상류층의 과시적 혼수규범이 나타나 조선 후반기에 이르러 일반층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많은 혼수장만이 규범화되었다. 더우기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혼란기의 불안심리가 근대 혼수의 양과 질의 증가를 초래하였고(김정근, 1996), 현대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현대에는 신혼주택 마련이 필수적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가구의 살림장만도 필수화(김모란, 1993)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혼수문화는 신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혼수 자체가 혼인을 위한 반 강제적 조건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 비용 부담은 급속히 증가되어 딸의 혼수를 상속으로 보는 견해까지 나타났다.

혼수의 역사적 측면을 살펴볼 때, 혼수는 그 시대의 제도나 문화, 생활양식이 반영되는 문화현상이며 전통적으로 한 사회와 집단의 가치나 규범 그리고 관습적인 다양한 요인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문화의 규범적 기능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

고 사회조직의 지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혼수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혼수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혼수에 관한 사회의 규범이 무엇인지 파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대 사회는 서구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가 체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여전히 중요한 행동원리로 작용하고, 자본제적 가부장제(김모란, 1993)가 잔존하는 비합리적이고 특수한 가치기준이 사회조직과 집단의 역할관계에 작용하고 있어서 오늘날 가족주의가 여전히 사회적 준거틀로 작용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조선시대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한국사회의 규범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혼수규범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의 규범의식이 뒤섞여 나타나고 규범과 실제의 이중구조 속의 갈등이 혼수의 특수성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사회조절기체인 가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대 도시민의 혼수규범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 혼수규범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혼수규범의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혼수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혼수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혼수규범 연구의 방법은 현대에도 지속되는 강한 가족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가족이 사회규범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단위로 파악하는 미시사회학적 접근의 혼수조절 이론틀을 개발하고, 이론틀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정교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현대 도시민의 혼수규범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혼수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혼수의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며, 혼수규범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 〈연구문제 3〉 혼수규범 유형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혼수규범 유형에 따라 혼수 조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현대 혼수규범의 접근방법과 관련변인

1. 미시사회학적 접근

미시사회학적 접근(microsociological approach)은 체계기능모델의 하나로서 사회체계 틀 안에서 사람과 그들의 환경 및 반응을 분석하는 이론틀이며, 가족을 미시사회로 보고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사회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상황조건과 관계가 있고, 사회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 때문에 문제로서 정의되고, 그 문제해결은 개별가족의 총합인 집단적 사회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부각시켜 사회규범 즉, 문화규범(cultural norm)과 가족규범(family norm)의 조절과정에서 각 가족이 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 가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한 사회의 규범 파악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예견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규범을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도되고(Morris & Winter, 1978) 규범의 측정은 행동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Morris와 Winter(1978)의 주거조절이론에서 보면, 문화규범은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범위의 규칙으로서 사회적으로 통합된 사회의 전체 가족에게 적용된다. 이는 성문화된 형식적인 규범부터 비형식적인 규범 모두를 포함한다. 가족규범이란 가족의 가치가 반영된 사고와 행동체계로서 문화규범과 관련이 있지만, 각 가족의 상황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규범이다. 규범의 학습은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화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고, 규범에서 일탈될 때, 그 내용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즉 문화규범에 비추어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느 수준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나지만 그 수준을 넘으면 심각한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비중은 가족마다 달라 두 규범 사이에 차이가 많을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류계층에서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문화규범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문화규범과 현재의 조건과의 괴리는 가족규범에 의해 완화되고, 남는 차이만큼 규범적 결함(normative deficit)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가족은 새로운 균형점(new equilibrium)을 추구하게 된다. 제약(constraints)은 가족의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오늘날 혼수의 규범적 결함에 영향미치는 요인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내적 강점과 약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장벽이 혼수규범의 제약이 된다. 그리고 제약으로 인해 생기는 규범적 주저결함은 행동적 성향(behavioral propensities)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가족의 상황이 지속적인 변화와 변형이 이루어질 때도 전체의 연속적인 문화규범은 유지되는데, 이러한 특징에 따라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이 각각 측정됨으로써 사회의 규범과 가족의 실제 행동의 이중성과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접근을 이용한 연구는 홍형욱(1986, 1994)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모형은 미시사회학적 시각의 틀로서 가족이라는 단위의 사회체계와의 상호영향성을 중시하면서 기능적, 갈등론적 시각을 모두 수용하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은 구조적(문화규범, 제약), 갈등론적(가족규범, 적응), 기능적인(혼수실태 및 조건) 것을 함축함으로써 총체적으로 혼수행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규범에 의해 결정된 혼수수준의 만족도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을 가족에 따라 어떻게 조정 혹은 적응과정을 거치는가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론모형에서 혼수규범은 하위개념인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으로 구성되며 혼수규범의 측정은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합(문화규범+가족규범=혼수규범)이 혼수규범이라는 가정으로 성립된다. 규범적으로

제시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인 행동이 혼수조정이며, 규범적 수준을 낮추어 자족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음이다. 제약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장애가 되었던 요인을 의미하며, 가족의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지위, 성별, 소득, 사회사상, 기술수준 또는 가치변화 같은 것이다. 문화규범과 혼수 마련 조건과의 괴리는 가족규범에 의해 완화되고 남은 차이 만큼의 규범적 결함을 느끼게 된다고 가정하여 가족이 새로운 균형점을 추구하는 과정을 혼수조절로 설정하였다.

2. 현대 혼수규범의 관련변인

(1) 인구사회경제적 변인

현대 도시민의 혼수 마련과 그 의미가 신랑의 자질을 신부측이 물질을 주고 사는 행동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랑값'이 지불교환되는 가치기준이 됨으로써 신랑의 자질을 나타내는 신랑의 직업, 연령, 학력, 소득은 혼수규범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관련 선행연구(박혜인, 1991; 이효제 외 1991; 장은영, 1990)는 현대 혼수의 의미는 조건과 '물질의 교환'임을 지적하였으며, 혼수는 협동적 관계를 형성한 신혼부부의 결혼생활 산출을 위해 공동출자하는 자원(정용선 외 2인, 1994)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자원 또는 물질 교환의 수단이 되는 경제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혼수는 특수계층인 경우 일반계층보다 더 큰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계층에 따라 혼수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신부의 조건은 신랑측 혼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위가 있는 시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며느리를 보는 경향(김모란, 1993)이 있어서 신랑을 포함하여 신부의 직업, 학력등도 혼수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현대 혼수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주부와 남편의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등을 도출할 수 있다.

(2) 가족과 혼인 변인

경제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현대 도시는 핵가족이

증가하고 산업발달과 상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는 가족이주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화 과정에서 자녀수의 감소, 여성취업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 신기제 등은 가족구성원의 응집력 약화를 가져와 대가족의 가족유형이 줄어들고 정서적, 경제적 협력관계의 성격으로 가족관계도 변화하였다. 또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핵가족의 확산으로 혼수 양을 증가시켜(이현승, 1996) 오늘날 살림용품 일체를 마련하는 규범이 되었고(한국여성개발원, 1986), 신부가 준비하는 예단의 대상범위는 시댁의 직계가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현대는 자본제적 가부장제 특성이 혼수규범의식과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에 따라 가족 유형은 혼수규범과 관계가 있다.

부계혈통주의에 의존한 전통적 가족의식이 혼례에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지속됨에 따라(최경숙, 1995) 혼수 결정에 있어 문화규범을 따르기 보다는 가족규범이나 가족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이 역사적 고찰에서 밝혀졌다(황경애, 1994). 이러한 가족과 가문의 중요성은 현대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대와 친정의 출신지역에 따라 혼수규범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편과 부인의 출신지역을 포함하였다.

배우자 선택유형을 살펴보면, 9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애혼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매혼이 아직은 우리 사회의 혼인에 있어서 문화규범이 되고 있다. 중매혼의 경우 양측의 객관적 조건들이 우선시되는 반면, 연애혼은 객관적 조건보다 혼인당사자들의 사랑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혼수마련의 규범의식에는 혼인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모란, 1993). 또 도시 중간계층에서 과도한 혼수를 주도하는 것은 중매혼으로 나타나서 혼인방식과 혼인연대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 연대에 따라 혼수품 증가현상을 뚜렷이 나타나고 연애혼의 집단이 중매혼 집단에 비해 살림살이를 많이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저연령대가 고연령대에 비해 많이 장만하였다고하여 혼인연령과 시기 및 혼인방식은 관련성을 나타내며 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비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장은영, 1990)에서는 우리나라 혼수비용이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 자원의 풍요로 인해 혼수의 양과 비용이 증가되었고 혼수의 양과 질에 의해 신랑과 신부의 가치가 평가되는 경향(최경숙, 1995)이 있으며 혼수비용은 본인 또는 양가의 부모가 부담하고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최근에 갈수록 도를 더하여 가는 특징을 보인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따라서 혼수는 해를 거듭하여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혼인연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주거 변인

핵가족으로 인한 신거제의 증가는 신랑에게 있어서 신혼주택마련이 중요하게 대두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부는 살림살이를 장만해야하는 관행이 규범화됨에 따라 80년대 중반이후 혼례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혼수품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혼수에 관한 최근 조사(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한국사회문화연구원, 1996)에 의하면 90년대의 신랑은 주택마련, 신부는 신랑이 마련한 주택 내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준비(김모란, 1993)하며 최근에는 신혼주택 마련에 신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주택의 소유상태, 주택유형, 규모 등이 혼수비용이나 혼인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주택소유 여부, 규모나 유형이 계층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거소유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심리적 투자를 의미하며 현대의 지가 급등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금까지 전통가족의 시가거주규정과 달리 핵가족화되고 신거제 가족이 증가하면서 신혼주택의 마련이 혼인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80년대의 급격한 주택 비용의 상승은 신랑측이 혼인시 주택 비용에 상당하는 재화를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부로부터 보상 받으려는 심리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신랑측이 준비하는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신부측 혼수 내용과 양이 상승해야 함을 의미(이현송, 1996)함으로써 혼수 증가(최경숙,

1995)나 호화혼수 과다혼수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또한 주거유형은 좌식과 입식의 주거생활양식적 특징을 규정하게 되므로 살림살이로 마련하는 혼수 중 대표적인 혼례가구의 구입과 그 품목 및 가짓수 선택에 영향을 주고(한국여성개발원, 1986), 주거유형은 가족생활의 다양화, 태도의 다양성, 병리적 성향이 있는 행동유형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경희 외 2인, 1994) 혼수규범 연구에 있어 주거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혼수규범의 측정 도구

현대의 혼수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혼수 관련 연구(박혜인, 1990; 장은영, 1990; 김모란, 1993)에 사용된 문항과 관련문헌 자료(이효재 외, 1991;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한국사회문화연구원, 1996)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 문항 중, 혼수규범 측정도구는 22개로 구성되었다. 문화규범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도록 하였으며 '매우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 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음'에 이르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규범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항에 대해 현재 응답자의 생각을 '정말 그렇다', '그렇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한 결과, 혼수의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은 신뢰도가 각각 .755와 .744로 신뢰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중 기본살림마련차원은 .499, 자립 및 개인지향성 요인은 .494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각각 3개와 5개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합으로 이루어진 혼수규범의 총체적 신뢰도는 .746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표집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연령은 현대의 혼수규범을 구별하기 위해 50년대 이후 결혼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설계는 사회경제적 계층별 분포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국 도시지역 토지시가 조사표'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행정동의 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상류, 중류, 하류지역을 강남,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8개 구역을 선택하였다. 선별된 지역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사대상을 할당하기 위해 먼저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는 20대부터 60대 미만의 주부가 표집되도록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를 위해 놀이방, 유치원도 포함시켰다. 표집이 어려운 신혼주부와 50대의 주부는 각 지역별로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자인 주부가 질문지에 자신과 남편의 혼수 경험을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예비조사는 1996년 10월 4일부터 11일 까지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항들의 양호도를 비교 검토하여 질문 문항을 조정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1996년 12월 20일부터 1997년 1월 30일까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1000부 배포하여 812부(81.2%)를 회수하였다. 이중 자료처리에 부적당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66부(배부 매수의 76.6%, 회수 매수의 94.3%)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에 의해 처리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혼수규범, 문화규범, 가족규범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과 알파요인 추출법(Alpha Method)을 사용하고 베리맥스(Varimax), 쿼티맥스(Quartimax), 이쿼맥스(Equamax), 오브리민(Oblimin) 요인회전방법을 사용한 후에 요인구조를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요인의 수는 Scree test로 결정하였다. 혼수규범의 유형화를 위해 혼수규범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집락분석을 하였고, 집단간 상대적인 순위를 정하기 위해 Scheffé test를 하였으며 유형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유형화된 집단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하였고 혼수조정이 혼수규범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 주부가 33.9%, 40대 남편이 37.1%를 차지하여 20대와 50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현재 총자산 1억 미만의 분포가 가장 높았고 주부는 혼인당시 취업인 경우가 61.9%를 차지하였으며 회사원인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혼인당시 회사원이었으나 현재 전문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혼인당시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 70.7%를 차지하였고 80년대 혼인한 연애혼의 경우가 다소 많았다. 부부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으나 지방의 경우, 경상도가 타 지역보다 다소 많았다. 신혼주택은 남편측이 마련하는 경우가 72.4%로 규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혼주택은 11-19평, 방수 2개 이하의 전세 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1. 혼수 실태

혼수 실태에서는 혼수수준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혼수비용은 1500-2000만원인 경우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400만원 이상으로서 2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에서 조사한 1500만원-2500만원 미만이 42.3% 이었던 경우 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50대 까지 포함됨으로써 신혼 주부를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한 연구에 비해 혼수비용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혼수비용, 수준, 만족도 및 조절 행동

| 변수 | 집단 | 빈도(%) |
|---------------------|-------------|------------|
| 혼수수준계획 | 10-6단계 | 240(31.7) |
| | 5단계 | 321(42.3) |
| | 0-4단계 | 197(26.0) |
| 계 | | 758(100.0) |
| 혼수수준실제 | 10-6단계 | 251(33.2) |
| | 5단계 | 253(33.5) |
| | 0-4단계 | 245(33.3) |
| 계 | | 749(100.0) |
| 시댁과 남편의 혼수만족도 | 매우 만족 | 71(9.3) |
| | 만족 | 280(36.6) |
| | 보통 | 343(44.8) |
| | 불만족 | 56(7.3) |
| | 매우 불만족 | 15(2.0) |
| 계 | | 765(100.0) |
| 본인시댁등의 혼수수준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 54(7.0) |
| | 만족 | 258(33.7) |
| | 보통 | 386(50.4) |
| | 불만족 | 61(8.0) |
| | 매우 불만족 | 7(0.9) |
| 계 | | 766(100.0) |
| 지출내용 | 예단, 예물 | 260(34.3) |
| | 가구, 가전제품 | 397(52.4) |
| | 주택 | 60(7.9) |
| | 결혼식과 피로연 | 37(4.9) |
| | 자동차 | 3(0.5) |
| 계 | | 757(100.0) |
| 구입시기 | 결혼전 미리 마련 | 78(23.4) |
| | 분가시에 마련 | 32(4.2) |
| | 결혼당시 마련 | 445(58.5) |
| | 살면서 마련 | 106(13.9) |
| 계 | | 766(100.0) |
| 혼수비용 | 900만원 이하 | 153(20.9) |
| | 1000~1300만원 | 155(21.2) |
| | 1500~2000만원 | 233(31.9) |
| | 2400만원 이상 | 190(26.0) |
| 계 | | 731(100.0) |
| 혼례장롱비용 | 100만원 이하 | 154(21.3) |
| | 120~200만원 | 221(30.6) |
| | 220~350만원 | 169(23.4) |
| | 400만원 이상 | 179(24.8) |
| 계 | | 723(100.0) |
| 혼수조정과 적응 | 본인이 혼례후 마련 | 185(25.4) |
| | 친정에서 혼례후 마련 | 34(4.7) |
| | 시댁에서 혼례후 마련 | 23(3.2) |
| | 혼례전 친정에서 마련 | 53(7.3) |
| | 그대로 적응 | 423(58.2) |
| | 없었음 | 9(1.2) |
| 계 | | 727(100.0) |

혼수비용중 가장 많이 지출한 내용은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52.4%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예단, 예물 3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김모란, 1993;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한국사회문화연구원,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살림살이 혼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수준은 신부나 그 가족이 혼수마련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것으로서 최하 0에서 최고 10의 11단계로 나누어 혼수마련의 계획 수준과 실제로 마련한 결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하였다. 신부 가족이 계획한 혼수수준은 5단계인 중간 수준인 경우가 42.3%로 가장 높아 혼수마련에 대해 중간 수준정도로 계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수준의 실체는 신부가 실제 장만한 혼수로서 시댁의 요구, 가족규범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 조정된 혼수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주관적 평가에 의하면, 상위수준 33.2%, 중간수준 33.5%, 하위수준 3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추진 중앙위원회(1996)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실제 마련한 혼수수준과 혼수계획을 비교해보면, 계획에서 중간수준으로 마련하고자 한 경우 실제 중간수준인 경우는 8.8%로 줄어들었고, 계획에서 중간수준 이하인 경우는 실제 혼수수준에서 7.3%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비해 실제수준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중간수준으로 간주하는 수준을 혼수의 문화규범이라 할 때,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혼수가 문화규범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함을 나타내준다. 또, 실제 마련한 혼수가 중간 수준인 경우와 그 이상 마련하는 경우를 합할 때, 66.7%로 나타나 혼수마련시 중간 이상은 마련한다는 혼수규범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댁이나 남편의 혼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4.8%를 차지하였으며, 본인과 시댁, 남편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혼수수준의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 5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시댁과 남편의 혼수 만족도가 전반적인 혼수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 조절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시댁에서 혼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떠하였는가를 물은 결과, 그대로 적응하는 경우가 58.2%로 나타나 현대 도시 주부는 적극적인 혼수 조정보다는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규범의식을 나타내 주었다. 혼수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혼례후 마련하는 경우가 25.4%, 친정에서 혼례후 마련하는 경우가 47%, 혼례전 친정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73%를 나타냈고 본인과 친정, 시댁에서 이루어지는 혼수조정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40.6%로 혼수로 인한 불만이 있을 경우, 혼수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혼수규범의 요인과 유형

여기서는 혼수규범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고 혼수규범 요인별 경향을 분석한 후, 집락분석을 통해 혼수규범을 유형화하였다.

(1) 혼수규범 요인의 구성

1) 문화규범 요인의 구성

혼수의 문화규범은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퀴티맥스(Quartimax) 방식에 의하여 회전한 것이 요인구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3개 요인의 총분산은 43.5% 이었다.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가 요인부하값이 .33 이상인 변수들에 따라 요약되었다. 요인행렬표에 의하면 각 요인에 걸리는 문항들의 요인부하값이 높은 편이며 전 문항이 한 요인에서 높은 요인부하값을 보임으로써 문항들이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20.0%로서 3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높은 요인 부하값을 가진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혼수는 신랑, 신부 양측에 의해 새생활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마련하는 특징을 보이며 신랑과 시부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규범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인 1은 '상호교환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로 설명되는 분산은 12.1%로

서 혼수는 신랑측이 원하는 경우 호화혼수를 감수하며 혼수마련시 시댁이나 남의 이목을 고려하여 장만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요인 2는 '시댁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6.4%이며 혼수는 신부가 주체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혼수비용은 혼인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노력 하고, 혼수는 살림살이에 비중을 두어 기본적 필수품 위주로 장만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요인 3은 '기초살림마련'으로 명명하였다.

2) 가족규범 요인의 구성

혼수의 가족규범은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퀴티맥스 방식으로 회전한 것이 요인구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었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족규범은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4개 요인의 총분산은 47.6% 이었다.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를 요인부하값이 .40 이상인 변수들에 의해 요약하였다. 요인행렬표에 의하면 각 요인에 걸리는 문항들의 요인부하값이 매우 높았으며 문항들이 높은 변별력을 보이고 있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23.4%로서 4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 요인은 많은 혼수 장만이 신부지위를 높여주며 시집살이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혼수는 신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신랑의 좋은 조건에 대한 대가의 의미인 점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요인 1은 '상호교환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로 설명되는 분산은 10.9%로서 혼수는 기본적인 필수품 위주로 장만되어야 하며 예단과 예물보다 살림살이 마련에 비중을 두고 혼수의 양과 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 성의가 중요하다는 규범의식을 보인다. 그러므로 요인 2는 '기초살림마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7.2%이며 이 요인은 혼수마련에서 시댁가문 풍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신랑과 시부모 의견을 반영하고 신랑측이 원하는 경우 호화혼수도 감수하는 규범의식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요인 3은 '시댁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분산 설명도는 6.2%이며 이 요인은 혼수 마련이 새살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

문에 신랑, 신부 양가에서 어느정도 무리를 하여도 마련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요인 4는 '경제적 토대마련'으로 명명하였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 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혼수에 대해 상호 교환적인 등가법칙이 적용될 것을 의미하는 '상호교환성' 요인과 '기초살림마련', '시대지향성' 요인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가족규범에서는 '경제적 토대마련' 요인이 포함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요인이 포함되는 가족규범은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신혼가구의 경제적 기반 형성을 위해 가족이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화규범과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3) 혼수규범 요인의 구성

혼수규범 요인은 이론적 배경에 의해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22개 문항값을 구성한뒤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하여 최초의 요인들을 추출한 결과, 요인이 3개로 추출되었다. 베리맥스 방식에 의하여 회전한 것이 요인구조를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26.7%였다. 이러한 설명력은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을 분리하여 설명한 경우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묶인 요인의 차원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였기 때문에 혼수규범 차원으로 결정하였다. <표 2>에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를 요인 부하값이 .30이상인 변수들에 의해 요약하였다.

<표 2> 혼수규범의 요인행렬표

| 명명 | 문항내용 | 요인 부하값 | | |
|----------------------|-------------------------|--------|-------|--------|
| | | 요인 I | 요인 II | 요인 III |
| 교환 및 시대 지향성 | 많은 혼수장만으로 신부지위 높아짐 | .697 | | |
| | 많은 혼수장만이 시집살이 편하게 함 | .551 | | |
| | 남의 이목 고려 | .549 | | |
| | 신랑 조건의 대가 | .542 | | |
| | 신랑이 주는 예물을 기준으로 혼수결정 | .534 | | |
| | 신부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많이 장만 | .497 | | |
| | 예단과 예물보다 살림살이 마련에 비중 | .483 | | |
| | 신랑축이 원하면 호화혼수 감수 | .474 | | |
| | 시대가문 풍습을 따름 | .447 | | |
| | 신랑과 시부모 의견을 반영 | .443 | | |
| | 상속의 의미 | .422 | | |
| | 신랑 혼수로 주택이 필수적 | .374 | | |
| |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 | .300 | | |
| 기본 살림 마련 | 기본적 필수품 위주로 장만 | | .540 | |
| | 가격보다 성의 중시 | | .414 | |
| | 예단과 예물보다 살림살이 마련에 비중 | | .383 | |
| 자립 및 개인 지향성 | 혼수비용은 혼인당사자 부담 | | | .464 |
| | 혼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 | | | .374 |
| | 가정의례준칙을 고려 | | | .363 |
| | 신부가 주체적으로 혼수의 선택과 결정을 함 | | | .356 |
| | 친정가문 풍습을 고려 | | | .309 |
| | 고유값 | 3.379 | 1.674 | .558 |
| | 분산(%) | 16.1 | 8.0 | 2.7 |
| | 누적분산(%) | 16.1 | 24.1 | 26.7 |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16.1%로서 3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 요인은 혼수를 많이 장만함으로써 신부의 지위가 높아지고 시집살이가 편해진다고 생각한다. 많은 혼수는 신랑의 좋은 조건에 대한 대가로서 신랑측이 원하면 호화혼수도 감수하며 시대가문의 풍습을 따라 혼수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요인 1은 '교환 및 시대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혼수규범 분산의 8.0%를 설명해 주는데, 혼수는 기본적인 필수품 위주로 장만하고 가격보다 성의가 중요하며, 예단과 예물보다 살림살이 마련에 비중을 두는 것에 높은 요인부하 값을 보였으므로 '기본살림마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혼수규범 분산의 2.7%를 설명해 주는데, 이 요인은 혼수비용을 혼인당사자가 부담하고 가정의례준칙을 중시하고 신부 개인 지향적이고 부모에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규범 의식을 보여주므로 '자립 및 개인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의 혼수규범은 '교환 및 시대지향성', '기본살림마련', '자립 및 개인지향성'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혼수규범은 기본살림마련의 규범의식과 개인간의 자발적 합의를 중시하는 서구의 혼인계약사상에 따른 자립적인 규범의식 및 자본주의에 따른 시장교환 원리를 반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혼수규범 의식을 문화규범이나 가족규범보다 더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혼수규범 요인의 경향

각 혼수규범 요인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점수의 범위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교환 및 시대지향성' 요인의 점수 범위는 34-122점이고, 평균은 79.72점으로서 척도의 중간점수인 44점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도시민은 교환 및 시대지향성 규범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집단별로 보면 '중'의 집단이 70.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기본살림마련' 요인의 점수 범위는 9-30점이고, 평균은 22.32점으로 중간 점수인 10-11점에 비교해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아도 '중'의 집단이 57.6%로 가장 많았고 '상'의 집단도 36.8%를 차지하였다.

'자립 및 개인지향성' 요인은 점수 범위가 14-50점이고, 평균은 29.75점으로 중간 점수인 18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볼 때, '중'의 집단이 69.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하'의 집단이 25.3%를 차지하였고 '상'의 집단은 4.8%로 가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현대 도시민의 혼수 규범의식은 '교환 및 시대지향성'을 가장 많이 지향하고 있으며 '자립 및 개인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의 집단은 공통적으로 각 요인에서 비중이 높아 혼수규범 의식은 '중'의 집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살림마련'에는 '상'의 집단이 많아서 철저한 의식을 보여

〈표 3〉 혼수규범 요인의 경향

| 혼수규범요인 | 구분 | 점수 | 빈도(%) | 평균(문항수) |
|----------|----|--------|-----------|------------|
| 교환및시대지향성 | 상 | 91-122 | 145(20.9) | 79.729(13) |
| | 중 | 63- 90 | 489(70.3) | |
| | 하 | 34- 62 | 61(8.8) | |
| 기본살림마련 | 상 | 24- 30 | 269(36.8) | 22.321(3) |
| | 중 | 17- 23 | 420(57.6) | |
| | 하 | 9- 16 | 41(5.6) | |
| 자립및개인지향성 | 상 | 39- 50 | 35(4.8) | 29.759(5) |
| | 중 | 27- 38 | 504(69.9) | |
| | 하 | 14- 26 | 183(25.3) | |

는 반면 '자립 및 개인지향성'에서 '상'의 집단이 적고 '하'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러한 의식이 덜 철저함을 알 수 있게 한다.

(3) 혼수규범의 유형화

혼수규범의 유형화를 위해 혼수규범 요인으로 명명된 '교환 및 시대지향성', '기본살림마련', '자립 및 개인지향성'의 세 요인을 기준으로 집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된 집단의 검증 및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락분석의 실시를 위한 예측집단수를 제시하기 위해 혼수규범 세요인을 토대로 선택조합에 따라 가능한 세요인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각 요인에서 지향하는 경우는 (+)부호, 지향하지 않는 경우는 (-)부호로 이분화시킨 결과 가설적 모형에 의해 8개 예측집단이 설정되었다. 분류기준보다 예측집단의 수가 많아 하므로 예측집단 수를 8개, 7개, 6개, 5개,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집락분석을 한 경우의 빈도와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8개 집단과 7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는 (-, -, -)유형과 (-, +, +)유형이, 6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는 (+, +, +)유형이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외하였고, 5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는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제외하였다.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는 빈도가 고르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빈도가 극히 적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없고 4개 유형 모두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유형 속에 포함되므로, 자료의 유실을 피하면서 다양한 혼수규범을 파악할 수 있는 잇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4개 집단이 혼수규범 요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test를 하였다(<표 5> 참조).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3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교환 및 시대지향성' 요인의 경우 집단 IV가 가장 높았다.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é-test를 한 결과 집단 I과 집단 II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두집단과 집단 III, 집단 IV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단 III과 집단 IV는 '교환 및 시대지향성'을 많이 지향하고 집단 II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살림마련' 요인의 경우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집단 I, 집단 IV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집단과 집단 II, 집단 III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표 4> 혼수규범유형의 집단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 집단 빈도(1, 2, 3) | 집단 빈도(1, 2, 3) | 집단 빈도(1, 2, 3) | 집단 빈도(1, 2, 3) | 집단 빈도(1, 2, 3) |
|------------------|------------------|------------------|------------------|------------------|
| I 84(-, +, +) | I 202(-, +, -) | I 243(+, +, +) | I 8(+, +, +) | I 198(-, +, +) |
| II 47(+, -, -) | II 8(+, +, +) | II 42(-, -, -) | II 174(+, -, +) | II 60(-, -, -) |
| III 43(-, -, +) | III 43(-, +, +) | III 147(+, -, -) | III 184(-, +, +) | III 402(+, -, -) |
| IV 86(+, -, +) | IV 62(+, -, +) | IV 184(-, +, -) | IV 248(-, -, -) | IV 16(+, +, +) |
| V 22(-, -, -) | V 60(-, -, -) | V 51(-, +, +) | V 62(-, -, +) | |
| VI 275(+, +, -) | VI 106(-, +, +) | VI 9(+, +, +) | | |
| VII 26(+, +, +) | VII 195(+, -, -) | | | |
| VIII 93(-, -, -) | | | | |

*1 : 교환 및 시대지향성 요인

2 : 기본살림 마련 요인

3 : 자립 및 개인지향성 요인

<표 5> 각 집단별 혼수규범요인의 점수와 일원분산분석 결과

| 요인 집단 | 교환 및 시대지향성 | Scheffé-test | 기본살림 마련 | Scheffé-test | 자립 및 개인지향성 | Scheffé-test |
|----------|---------------|--------------|------------|--------------|---------------|--------------|
| I | 71.061 | C | 25.313 | A | 33.076 | B |
| II | 70.117 | C | 16.983 | C | 24.200 | D |
| III | 84.498 | B | 21.612 | B | 28.458 | C |
| IV | 105.375 | A | 27.188 | A | 42.313 | A |
| F비 | 115.260*** | | 201.788*** | | 132.649*** | |

*** P < .001

* Scheffé-test 결과에서 같은 문자간에는 차이가 없음.

기본살림마련은 집단 I, IV가 가장 많이 지향하고
고 집단 II가 가장 적게 지향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자립 및 개인지향성' 요인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집단 IV이고 집단 II가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인다. 4개 집단 모두 '자립 및 개인지향성'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test의 결과에 의
하면 네집단 사이에는 각각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
났다. 이상에서 혼수규범유형을 네 집단으로 유형화
하는데, 세 하위요인 중 자립 및 개인지향성 요인에
의하면 의해 네집단이 뚜렷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또 네 집단 중, 집단 II는 세 요인 모두에서 가장 값
이 적고 집단 IV는 가장 많아 이 세 요인과 관련하여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수규범의 3개 하위요인에서 4개
집단의 혼수규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준
다. 이는 각 4개 집단이 혼수규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집단임을 나타내주며 따라서 4개 집단으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하였음도 나타내준다.

유형화된 4개 집단들을 구성하는 혼수규범 각 요
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집단별 혼수규범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일원분산분석, Scheffé 검증 결과 및 혼수규범의 하
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
점수의 순위를 파악한 결과(<표 6> 참조)는 다음과
같다.

집단 I은 혼수규범의 세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
수를 살펴보면 '기본살림마련', '자립 및 개인지향
성'의 두 요인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며, 상대적인

<표 6> 각 집단의 혼수규범 요인의 표준화된 점수와
집단간 순위

| 요인 | 집단 I | 집단 II | 집단 III | 집단 IV |
|------------|-------------|-------------|------------|------------|
| 교환 및 시대지향성 | -2.557 4 | -1.344 3 | 3.204 1 | 3.204 1 |
| 기본 살림 마련 | 2.113 1 | -3.664 4 | -.914 3 | 2.113 1 |
| 자립 및 개인지향성 | .796 2 | -1.269 4 | -.706 3 | 3.799 1 |

순위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 집단은 '기본살림
마련' 이나 '자립 및 개인지향성' 을 중시하는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유형의 명칭을 자
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이라고 하였다.

집단 II는 표준화된 점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갖고
본질적으로 혼수에 대해 새로운 가구의 경제적 독
립을 위해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회박하므로
살림살이로 마련하는 혼수에 있어서도 경제적 생활
의 안정을 위한 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
려한 경우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명칭을 경제적 토대마련형이라고 하였다.

집단 III은 '교환 및 시대지향성'의 요인에서만
양의 값을 가지며 다른 두 집단의 상대적 순위도
낮았다. 그러므로 혼수에 있어 상호 교환성을 중시
하며 혼수규범 요인으로써 외적 요인인 시대의 눈
치를 살피거나 자신에 대해 시대의 평가나 남의 이
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이목중시 교환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IV는 세 하위요인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환 및 시대 지향성'과 '자립 및 개인지향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명칭을 개인중시 교환형이라 명명하였다.

3. 혼수규범 집단별 특성

혼수규범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변수와 분할표 분석을 한 결과 혼수규범 유형과 각 관련변인의 관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주부의 연령과 혼인연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각 집단의 특성을 알기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도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1) 집단 I :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

이 집단은 29.4%의 분포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집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 집단은 혼수규범의 세 하위차원중, 혼수의 교환성과 시대지향성의 의식이 가장 적고 혼수마련에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마련하며 살림살이는 부부 개인 생활위주로 마련해야 한다는 규범의 의식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주부의 연령은 20대의 분포가 가장 많으며 50대의 비율은 가장 낮다. 혼인당시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47.1%로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전문직의 분포는 가장 낮다. 남편의 학력은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많고 월평균 소득은 200-

<표 7> 혼수규범집단별 특성

n(%)

| 변 수 | 구 분 |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 | 경제적 토대마련형 | 이목중시 교환형 | 개인중시 교환형 | 총계 | |
|---|-----------|-----------------|-----------------------|-------------|-------------|------------|------------|
| 인 구 사 회 경 제 적 특 징 | 주부의 연령 | 29세 이하 | 68(34.3) | 4(6.7) | 76(18.9) | 1(6.3) | 149(22.0) |
| | | 30~39세 | 63(31.8) | 23(38.3) | 144(35.8) | 7(43.8) | 237(35.1) |
| | | 40~49세 | 49(24.7) | 25(41.7) | 113(28.1) | 2(12.5) | 189(28.0) |
| | | 50세 이상 | 18(9.1) | 8(13.3) | 69(17.2) | 6(37.5) | 101(14.9) |
| | | 계 | 198(100.0) | 60(100.0) | 402(100.0) | 16(100.0) | 676(100.0) |
| | | | $\chi^2=42.374^{***}$ | | | | |
| | 남편의 직업 | 단순노동 및 자영업 | 50(26.5) | 11(20.0) | 91(23.8) | 4(26.7) | 156(24.3) |
| | | 회사원 | 89(47.1) | 28(50.9) | 183(47.9) | 7(46.7) | 307(47.9) |
| | | 전문직 | 50(26.5) | 16(29.1) | 108(28.3) | 4(26.7) | 178(27.8) |
| | | 계 | 189(100.0) | 55(100.0) | 382(100.0) | 15(100.0) | 641(100.0) |
| | | | $\chi^2=1.177$ | | N.S. | | |
| |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44(22.7) | 11(19.0) | 66(17.1) | 4(26.7) | 125(19.1) |
| 200~300만원미만 | | 67(34.5) | 13(22.4) | 122(31.5) | 3(20.0) | 205(31.3) | |
| 300~400만원미만 | | 47(24.2) | 20(34.5) | 99(25.6) | 5(33.3) | 171(26.1) | |
| 400만원 이상 | | 36(18.6) | 14(24.1) | 100(25.8) | 3(20.0) | 153(23.4) | |
| 계 | | 194(100.0) | 58(100.0) | 387(100.0) | 15(100.0) | 654(100.0) | |
| | | $\chi^2=10.501$ | | N.S. | | | |
| 남편의 학력 | 무학~중졸 이하 | 9(4.6) | 3(5.0) | 14(3.6) | 2(12.6) | 28(4.1) | |
| | 고등학교 졸업 | 54(27.7) | 14(23.4) | 97(24.4) | 3(18.8) | 168(25.1) | |
| | 전문대 졸업 | 25(12.8) | 4(6.7) | 24(6.0) | 1(6.3) | 54(8.1) | |
| | 대학졸업이상 | 107(54.9) | 39(65.0) | 262(66.0) | 10(62.5) | 418(62.6) | |
| | 계 | 195(100.0) | 60(100.0) | 397(100.0) | 16(100.0) | 668(100.0) | |
| | | $\chi^2=19.858$ | | N.S. | | | |

| 변 수 | 구 분 |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 | 경제적 트대마련형 | 이목중시 교관형 | 개인중시 교관형 | 총계 | |
|---------------------|---------------------|-----------------------|-----------------|-------------|-------------|------------|------------|
| 가족 및 혼인 특성 | 가족유형 | 대가족 | 54(27.3) | 20(33.3) | 119(29.7) | 5(31.3) | 198(29.3) |
| | | 핵가족 | 144(72.7) | 40(66.7) | 282(70.3) | 11(68.8) | 477(70.7) |
| | | 계 | 198(100.0) | 60(100.0) | 401(100.0) | 16(100.0) | 675(100.0) |
| | | | $\chi^2=0.920$ | N.S. | | | |
| | 남편의 출신지역 | 서울 | 63(32.0) | 19(32.2) | 121(30.3) | 5(31.3) | 208(31.0) |
| | | 전라도 | 46(23.4) | 13(22.0) | 80(20.1) | 3(18.8) | 142(21.2) |
| | | 경상도 | 35(17.8) | 16(27.1) | 96(24.1) | 2(12.5) | 149(22.2) |
| | | 충청도 | 29(14.7) | 6(10.2) | 58(14.5) | 3(18.8) | 96(14.3) |
| | | 기타 | 24(12.2) | 5(8.5) | 44(11.1) | 3(18.8) | 76(11.3) |
| | 계 | 197(100.0) | 59(100.0) | 399(100.0) | 16(100.0) | 671(100.0) | |
| | | | $\chi^2=14.422$ | N.S. | | | |
| | 혼인 연대 | 1970년 이전 | 12(6.1) | 8(13.6) | 34(8.7) | 5(31.2) | 59(8.9) |
| | | 1970~1979년 | 40(20.4) | 18(30.5) | 113(28.8) | 1(6.2) | 172(25.9) |
| | | 1980~1989년 | 72(36.7) | 29(49.2) | 151(38.4) | 7(43.8) | 259(39.0) |
| | | 1990년 이후 | 72(36.7) | 4(6.8) | 95(24.2) | 3(18.8) | 174(26.2) |
| 계 | 196(100.0) | 59(100.0) | 393(100.0) | 16(100.0) | 664(100.0) | | |
| | | $\chi^2=40.820^{***}$ | | | | | |
| 혼인 방식 | 연애 | 108(54.5) | 24(40.0) | 190(47.6) | 9(56.3) | 331(49.2) | |
| | 중매 | 48(24.2) | 25(41.7) | 114(28.6) | 3(18.8) | 190(28.2) | |
| | 연애+중매 | 42(21.2) | 11(18.3) | 95(23.8) | 4(25.0) | 152(22.6) | |
| | 계 | 198(100.0) | 60(100.0) | 399(100.0) | 16(100.0) | 673(100.0) | |
| | | $\chi^2=8.977$ | N.S. | | | | |
| 주거 특성 | 혼인 당시 주거 유형 | 단독주택 | 85(44.7) | 19(35.2) | 170(43.5) | 5(38.5) | 279(42.9) |
| | | 아파트 | 52(27.4) | 23(42.6) | 125(32.0) | 8(61.5) | 208(32.0) |
| | | 기타 | 53(27.9) | 12(22.2) | 96(24.6) | 3(1.8) | 161(25.1) |
| | | 계 | 190(100.0) | 54(100.0) | 391(100.0) | 13(100.0) | 651(100.0) |
| | | | $\chi^2=11.775$ | N.S. | | | |
| | 혼인 당시 주택소유 상태 | 자가 | 47(25.0) | 12(22.2) | 88(22.4) | 4(30.8) | 151(23.3) |
| | | 전세 | 109(58.0) | 27(50.0) | 229(58.4) | 5(38.5) | 370(57.2) |
| | | 월세 및 기타 | 32(17.1) | 15(27.8) | 75(19.1) | 4(30.8) | 126(19.5) |
| | | 계 | 188(100.0) | 54(100.0) | 392(100.0) | 13(100.0) | 647(100.0) |
| | | | $\chi^2=8.701$ | N.S. | | | |
| 혼인 당시 주거사용 방수 | 2개 이하 | 141(74.2) | 37(63.8) | 283(73.5) | 9(64.3) | 470(72.6) | |
| | 3개 | 38(20.0) | 17(29.3) | 76(19.7) | 4(28.6) | 135(20.9) | |
| | 4개 이상 | 11(5.8) | 4(6.9) | 26(6.8) | 1(7.1) | 42(6.5) | |
| | 계 | 190(100.0) | 58(100.0) | 385(100.0) | 14(100.0) | 647(100.0) | |
| | | $\chi^2=3.755$ | N.S. | | | | |

3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다. 혼인방식은 연애혼에 의해 신혼 초부터 핵가족을 이루고 신혼주택은 전

세의 단독주택이며 방수는 2개 이하로 새생활을 시작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집단 II : 경제적 토대마련형

이 집단은 전체의 8%를 차지한다. 이 집단의 특성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40대 연령 비율이 높고, 남편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매우 많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분포를 이루고 단순노동 및 자영업의 비율은 가장 낮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대가 많아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준다.

가족특성을 보면 혼인당시 대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남편의 출신지역도 서울인 경우가 가장 많다. 남편이 지방출신인 경우 경상도인 경우가 가장 많고, 충청도의 출신지역인 경우가 가장 적었다. 혼인특성에 있어서는 혼인연대가 80년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90년대 이후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혼인방식에 있어서는 중매혼인 경우가 가장 많고 연애+중매혼인 경우가 가장 적었다.

주거특성중 혼인당시 주거유형이 아파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택 소유상태에 있어서는 전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자가인 경우가 가장 적었다. 혼인당시 주거사용방수는 세 집단과 비교할 때 방이 2개 이하 전세아파트 경우가 가장 많다.

(3) 집단 III : 이목중시 교환형

이 집단은 전체의 6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아 현대 도시민의 혼수규범을 대변해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집단은 혼수의 교환성과 시대지향적인 규범의식을 크게 중시하며 개인주의적 기본살림마련 의식이나 자립적인 혼수마련의 의식을 중시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혼수 마련에서 외적 요인인 시댁의 눈치를 살피거나 남의 이목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며 가족의 능력 이상의 혼수를 마련하고 상대측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보상 받으려 하는 상호 교환성의 규범의식을 갖는다.

주부 연령은 30대의 80년대 혼인한 집단으로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교육수준은 가장 높았다. 남편은 서울 출신이 많다. 혼인방식은 연애혼이 많았으며 혼수 주택에 있어 전세의 단독주택의 비율이 다소 많은 편이며 사용 방수 2개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4) 집단 IV : 개인중시 교환형

이 집단은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집단의 특성은 신혼가구의 자립을 위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신혼살림 마련이 일방적이지 않고 신랑측과 신부측의 새살림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혼수를 결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 혼례후 공동 출자하여 신혼가구가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살림을 서로 무리함이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갖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사례수가 적으나 연령분포는 30대와 50대가 많고 남편의 직업, 소득, 출신지역의 분포가 고르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많고, 핵가족에 서울출신이 많다. 혼인연대는 70년대이전과 80년대이고 연애혼이 많으며 혼인당시 아파트거주자가 가장 많고 방은 2개 이하가 많다.

4. 혼수규범 집단별 혼수조정 차이

혼수규범 각 집단별 혼수조정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혼수규범유형에 따른 혼수조정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경향은 알 수 있는데 개인중시교환형이 혼수조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이 혼수조정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중시 교환형의 경우,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에 따라 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은 신혼가구에 대해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므로 혼수조정보다 살면서 부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토대 마련형, 이목중시형의 순이었는데 이들 유형은 혼례시 혼수에 대해 양가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됨에 따라 혼수조정의 기회가 크게 필요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목중시형의 혼수조정이 더 낮은 것은 체면을 중시함에 따라 적극적인 혼수조정에 대한 고려

〈표 8〉 혼수규범집단별 혼수조정의 일원분산분석

| 집 단 | 혼수조정 | | |
|-------------|------|-------|------|
| | 빈도 | 평균 | F비 |
| 자립적인기초살림마련형 | 196 | .714 | .656 |
| 경제적토대마련형 | 58 | .879 | |
| 이목중시교환형 | 395 | .805 | |
| 개인중시교환형 | 16 | 1.063 | |

가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혼인 사후 행동성향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전제로서 사회조절기제로서의 가족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사회의 혼수에 대한 의식이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규범과 가족의 현실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규범과 혼수규범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가족규범과 문화규범의 합을 혼수규범으로 가정하여 우리사회의 혼수규범을 설명하기 위해 미시사회학적 접근의 혼수 연구 이론틀을 제시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수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살림살이로 마련하는 혼수비용은 1,500만원~2,4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고, 혼수 지출 중에서 살림살이 마련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계획에서 그 수준은 중간 정도 마련하고자 하여 이를 문화규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실제 마련한 혼수 수준은 하향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규범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마련한 혼수에 대한 시대와 남편의 만족도는 보통으로서 신랑측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련한 혼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는 태도가 문화규범으로 나타났으며 혼수조정을 이루는 경우, 본인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친정에서 혼인 전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의 문화규범 요인은 상호교환성, 시대지향성, 기초살림마련이었으며 가족규범 요인은 상호교환성, 기초살림마련, 시대지향성, 경제적 토대마련으로 나

타났다. 가족규범 요인의 경제적 토대마련 요인은 부모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많은 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 재생산이나 신분상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문화규범과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요인이며, 오늘날 과시적 혼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혼수규범 요인은 '교환성 및 시대지향성', '기초살림마련', '자립 및 개인지향성'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자본주의에 따른 시장교환 원리를 포괄하는 혼수 의식을 나타냄으로써 현대 도시민은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이 혼합된 이중적인 혼수규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환성 및 시대지향성' 요인은 '중' 간인 집단이 가장 많고 '기초살림마련'은 '중'과 '상'의 집단이 많고 '자립 및 개인지향성'은 '중'의 집단이 많고 '상'의 집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혼수규범유형은 집락분석에 의해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명칭은 혼수규범 세 요인의 조합에 따라 자립적인 기초살림마련형, 경제적 토대마련형, 이목중시 교환형, 개인중시 교환형으로 나타났다. 혼수규범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는 주부의 연령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 및 혼인 특성으로는 혼인연대가 유의하였으며($P < .001$) 혼인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사자의 연령이 혼수규범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수규범 유형별 혼수조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개인중시교환형이 가장 혼수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의 혼인사후 행동성향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혼수규범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도시민의 혼수규범은 시대와 이목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물질의 교환이라는 실용적인 현대적 가치관이 혼합된 이중적인 혼수규범을 이루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강한 통합력을 갖는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범 의식이 쉽게 변할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현대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및 개인주의 등의 서구사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증가

와 함께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대 도시민의 혼수규범은 문화규범이 가족 규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규범의식은 '중'의 집단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호화혼수나 과다혼수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토대마련형 집단은 실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과다혼수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에 과도하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의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규범 자체가 매우 높다는 특징과 실제 가족규범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줄지 않았으므로 혼수의 문화규범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목과 교환을 중시하는 규범과 왜곡된 혼수문화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혼인후 타의적인 혼수조정이 이루어지는 폐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혼수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혼인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혼인시준 마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세대들 중심으로 최근에 혼인한 경우 합리적인 혼수 조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물질의 교환에 치우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목을 중시하는 규범의식을 탈피하고 문화적 전통을 살리는 새롭고 합리적인 혼수문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레관행에 관한 연구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2) 박혜인. "한국 전통혼례의 창조적 계승과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정책자료 90-5. 정무장관(제2)실, 1991.
- 3) 이경희·윤정숙·홍형욱. 주거학 개설. 문운당, 1994.
- 4) 이시형외. 『한국의 혼례문화: 그 문제점과 대안』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소 주최 제14차 공개 토론회, 1996.
- 5) 이현송. "사회관습과 소비행태의 변화-혼상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18호, 1996, pp.121-138.
- 6) 이효재·박민자·박숙자·박혜인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1.
- 7) 장은영.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인간발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0.
- 8) 정용선·김경연·김득성.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안가정학회지 제33권 6호, 1994, 115-135.
- 9) 최경숙.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도시 중간계층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 10) 최성애. 『혼수전쟁』. 서울: 청산, 1993
- 11)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6.
- 12) 홍형욱. "가족의 주거조절양상 -미시사회학적 접근으로-". 한국주거학회지 제5권 2호 1994, pp.1-14.
- 13) 황경애.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관리전공 박사학위 논문, 1994.
- 1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3: 1996.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 조사 결과, 1993.
- 16)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한국의 혼례문화: 그 문제점과 대안, 1996.
- 17) 한국여성개발원. 건전한 혼례혼수, 1986.
- 18) Casey, James: The History of the Family, oxford: blackwell 1989.
- 19) Kaplan, M. A.: For Love or Money: The Marriage Strategies of Jews in Imperial Germany. in Kaplan, M.A. (ed.), 1985.
- 20) Morris, E. W. &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78.